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음 2월 18일)

제20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정규직 전환 임용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저도 전주의 한 식구 됐어요”

시, 비정규직 170명 정규직 전환

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170명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복지후생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는 2일 시청 강당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156명과 직영으로 전환된 방문보건센터의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17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정규직전환심의와 해당부서 의견 수렴, 서류 전형, 경력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정규직 전환자의 대부분이 그동안 민원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대면하며 민원처리를 맡아온 근무자들이어서 이번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자들의 정년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복지후생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근무자들의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임금표준안 발표 시기를 고려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기간제 정원 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계획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고용보다는 가능한 월 단위 고용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비정규직의 인력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주시의 직원이 된 것이 꿈만 같다”면서 “지난 몇년 간 전주시에서 기간제로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간제라도 계속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규남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시계 빨라진다

기재부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배정 확정... 국토부 절차 착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재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배정이 확정돼 국토부가 본격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착수에 이어 전북도가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예타면제까지 성사되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져 2023세계잼버리 대회 전 개항 목표에 탄력이 예상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5억)가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었으나 지난 3월 말 배정이 최종 확정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사전타당성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공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2016.5) 돼 국

토부에서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마쳤으며(2016.12~2018.3), 사전타당성조사에 위해 올해 확보된 국가예산 5억원이 기재부에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 및 시급성이 고려돼 기재부가 지난 3월 말 수시배정 예산을 국토부에 배정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곧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계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시간 안에 본격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 확정 및 편익 등을 산출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

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어디에 공항을 배치해야 가장 효용가치가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공항의 입지도 확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앞으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조사도 끊임없이 중앙부처와 소통해 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23년 잼버리 대회 개최 이전에 공항이 개항돼 잼버리 대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6일 박근혜 1심 선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탄핵 13개월만인 오는 6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최순실(62)씨 등 국정농단 주역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메일 INDEX
12면 - 실체 드러난 익산 쌍룡

전주 개최 국제 미래산업 엑스포 준비상황은?

시, 3D 프린팅 등 현장보고회

3D프린팅과 드론산업, 가상현실(VR) 등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 미래산업 엑스포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엑스포 행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일 전주시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18 국제 3D 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개최 장소인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특별전

시장(동문 E구역)에서 박순종 전주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의 현장 보고회를 갖고 행사장 주변 각종 시설물 안전과 전시장 구성, 각종 프로그램들의 진행상황, 교통대책, 청소대책 등 엑스포 준비 상황에 대한 일체점검에 나섰다. 이날 시는 이번 엑스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내·외부를 둘러보며 시설물 안전상태 및 행사장 공간구성,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채규남 기자

검찰, 3번째 MB 옥중조사 무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3번째 조사 시도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시도가 계속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10시부

터 첨단범죄수사 신봉수(48) 1부장 과 송경호(48) 특수2부장 등이 조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불응해 정오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후 지난달 28일 첫 방문 조사를 시작해 이를 뒤인 28일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상민 기자

2018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시: 2018. 4. 8(일) 08:00
장소: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참가신청기간
2018.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063)465-7731, 02)418-7881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www.smgmarathon.com

| 주최 : 군산시, 대한육상연맹
| 주관 : 전라북도육상연맹, 군산시체육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육상연맹